

최 외 근 한전KPS 사장

2016 새 설계

유 상 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고수익 사업 발굴로 경쟁력 강화

수요 중심으로 시장 재편 박차

민간시장 대응 전략 다각화

해외 신규 수주 활로 모색

수주·시공·관리 표준화 추진



“한전KPS’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동에서 새해를 맞은 한전KPS 최외근 사장은 세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정비산업의 불리한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 기존 사업의 성장성은 정체될 것이고, 해외사업 및 대외사업의 역할도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전 KPS 전력설비공사, 산업설비공사, 발전설비개보수공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최 사장은 “새해를 맞아 우리가 말로만 ‘위기’를 외쳤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진짜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어 오늘날의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전사적인 ‘위기의식’의 재인식과 함께 혁신수준의 발전전환과 조직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의 사업영역과 지향점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한전KPS의 미래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경쟁 패러다임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뒤따라오던 민간정비회사 또한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좁혀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해외 및 대외사업의 경우 국내의 경기침체 장 기회의 영향에 따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절체절명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며 “국내시장에서 우리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해외 신규사업 수주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등 우리의 전략을 새롭게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해체, 부품공급 등 신성장사업 확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도전에 정면으로 응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화력, 원자력 등 기존 시장의 환경 변화와 민간발전시장 성장 추세에 맞춘 경쟁전략을 수립하고, 정비 서비스 기술과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국내 정비산업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주에서 시공, 사후관리까지 우리 회사만의 표준화된 마케팅 프로세스 구축을 비롯해 사업타당성 분석에 기반한 영업시스템을 정립하고 우리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성장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또 “신재생 및 송전설비 EPC 사업의 수행 체계를 정립하고, 신재생분야 발전 EPC 및 송전설비 건설 프로젝트 수행 등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다각화도 진행할 것”이라며 “장기 성장사업 확보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파리협약 신기후체제는 기회

거래시장 소규모 사용자 참여

전력관계·설비 안전에 만전



“전력거래소는 올해 급속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제도 및 미래의 계통운영체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 도시’ 나주 빛가람동에서 2016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KPX) 유상희 이사장은 ‘전문 역량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전력 시장과 전력 계통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됐다.

유 이사장은 나주에서 보낸 지난 한 해의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해 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력계통 및 시장운영, 사내의 소통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었지만 슬기롭게 이겨냈다”면서 “여러 외부 평가에서 우리 전력거래소를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력과 ICT융복합, 친환경에너지, 에너지프로슈머의 등장 등은 에너지산업을 공급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신기후체제가 형성된 것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분석했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실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부의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전력거래소는 올해 한 해를 이룬 급속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장제도 및 미래의 계통운영체계를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제도를 준비해야 하고, ‘분산자원, 에너지프로슈머 시장 개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전력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운영한 수요자원시장에 아파트, 상가 등의 소규모 전기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국민DR 시범사업’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에너지산업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력IT 설비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도 지난해처럼 꼭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면서 “중앙전력관제센터는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전설비 고장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대외 신뢰도 개선도 속제로 꼽았다.

또 “올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력분야에 적용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꾸준히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요광기자 kroh@kwangju.co.kr

신규 전력전문가, 에너지밸리 힘 보탠다

한전 신기술 양성교육 수료식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4일 나주 빛가람 본사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 기초전력연구원(원장 문승일)과 공동으로 ‘제1기 에너지밸리 전력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에너지밸리 전력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은 에너지밸리 이전기업 및 신생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채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전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초전력연구원 및 지역대학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10개 대학 전기전자 관련학과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56명 선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과정(16주)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야간 수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에는 평균 출석률 90%, 교육 수료율은 96.4%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매우 높았다.

교육은 에너지 관련 신기술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견학을 병행해 교육의 이해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교육을 받은 4학년 졸업생 36명중 4명이 취업이 확정됐으며 대학원 진학 1명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강사진 소속 기업체 중 2곳(파워맥스, 인셀)에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최대 5명 규모의 채용 의사를 밝혀, 채용 논의가 진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전은 향후 전기산업진흥회,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에너지밸리 조기 정착을 위



‘제1기 에너지밸리 전력신기술’ 교육생들이 14일 한전 본사에서 수료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전 제공>

한 인력 양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올 교육프로그램 운용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 규모인 연 2회, 12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교육실적을 학점

으로 인정하는 ‘학점 인정제’를 도입해 교육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콘진원, 28일 광주서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이 ‘2016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등지에서 순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사업 담당자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년 지원사업 중점 추진방향과 지원금 규모, 사업별 세부 내용 등을 기업, 연구소, 학교 등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설명회에서는 콘텐츠코리아랩본부를 비롯해 cel벤처단지본부, cel아카데미본부, 글로벌사업본부, 콘텐츠진흥본부, 문화기술진흥본부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본부별 사업 책임자들이 직접 올해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 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 401호, 402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오는 28일에는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다음달 3일에는 부

산(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잇달아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요 고객들에게 올해 지원사업의 핵심 목표와 제반 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지원사업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융복합콘텐츠 기획·개발, 창업, 해외진출, 투융자 지원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 ▲한류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수문화콘텐츠 발굴 및 금융지원 활성화 ▲지역, 전통콘텐츠 가치 재발견 등을 2016년 지원사업 5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작년 대비 약 40% 늘어난 총 2,9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금호동 국민은행 건물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융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시세-2억 5천만원, 급매 1억8천만원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400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원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